

도내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키운다

전북교육청, 내일까지 전문과정 연수 운영... '수업-학습관리-피드백' 역량 갖춘 교사 양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교원 학습코칭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0~22일까지 전주대학교 진리관에서 '교원 학습코칭 역량 강화 연수(전문과정)'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의 학습유형과 학습 걸림돌을 정확히 진단하고, 동기부여와 학습전략 지도를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습관 형성과 학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습코칭 전문성을 심화하는 게 목적이다.

교원 학습코칭 연수는 기본, 심화, 전문과정으로 체계화해 운영하며, 이번 전문과정은 심화과정 이수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직무연수(18시간)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코칭 수업 디자인 △성장 마인드셋 기반 코칭 전략 △표준 학습코칭 교육과정안 개발



20일 전주대학교 진리관에서 '교원 학습코칭 역량 강화 연수(전문과정)'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 현장 중심 실습과 피드백 등 이론과 실전을 결합한 실형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외부 전문가와 현장 교사가 함께 참여해 실제 교실에 적용 가능한 학습코칭 모델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문과정 연수 이후 학교 현장

적용과 연계해 2026학년도 '학습관형성 60일 프로젝트' 운영을 수행하며, 실제 교실 속에서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을 실천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교원의 학습코칭 전문성이 실제 학생의 학습 변화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정책의 핵심 축이다.

이를 통해 교원 학습코칭 역량 강화 → 학습코칭 기반 수업·학습관리 →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최연은 중등교육과장은 "학습코칭은 단순한 공부 방법 지도가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학습코칭을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의 질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의 책임있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누구나 함께하는 모두의 우주'

전북과학교육원, '수목금 별빛 여행' 연중 운영키로 도민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접수 통해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과학교육원(원장 강진순, 이하 과학교육원)은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는 특별 프로그램 '누구나 함께해요! 모두의 우주, 수·목·금 별빛 여행'을 도민 대상으로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동절기에는 매주 수·목·금 오후 8~9시까지 진행되며, 하절기(4월~8월)에는 오후 8시 30~9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천체관측 활동을 통해 우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에는 도민 누구나



나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주 관측실의 304mm 대형 굴절망원경과 초관측실의 천체망원경으로 달, 행성, 쌍성, 성단 등 다양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천체 관측이 어려운 상황에는 과학공작체협으로 대체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63-917-7143) 문의도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 맡길 교육감 자격 재검증을"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22~23일 동남아 지역동향설명회 진행



20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성현유치원을 방문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유아 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 위해 현장 목소리 반영"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방학 중 유아 돌봄 현장 점검·격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0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성현유치원을 방문, 유아 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방학 기간에도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유아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이루어졌다.

유 권한대행은 유치원 시설을 둘러

보고, 유아들의 놀이·수업 활동을 참관하며 교육과 돌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어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의 차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교원들은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유아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내실있고 안전한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을 건

의했다.

이와 더불어 하원 시간 통학차량에 탑승해 유아 하원 과정과 통학차량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하고, 유아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방학 중 방과후 과정 및 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확대... 교육·복지분야 인력 채용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참여기관 60곳으로 확대 따라 파견전문가 60명 채용... 30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이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에 따라 교육 및 복지 분야 인력 채용에 나섰다.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제적 지능 이음(느린학습자)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발달 교육 프로그램이다. 파견전문가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지·학습 능력 강화는 물론 정서·사회적응력 향상을 지원한다.

전북지원단은 이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참여기관을 기존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수혜 아동도 총 240명으로

늘어나며, 확대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아동들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인력은 총 60명으로, 오는 1월 30일 오전 10시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 2월 4일부터 6일까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선발자는 활동 전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한다.

지원 자격은 아동 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이수자 포함),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또는 교원 자격,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와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홈페이지(<http://www.it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063-227-5479)으로 하면 된다.

최현영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은 "2022년 시작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이 지역아동센터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더 많은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지닌 지역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현 운영위원장은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경제성능 아동의 생애주기'에 개입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5년차를 맞아 내실을 다지는 이번 사업에 지역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김재훈 기자

노병섭 전북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를 둘러싼 표절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전북교육을 맡길 교육감의 자격을 근본부터 다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표절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허위 사실 기재로 사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언론의 검증 보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한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수장의 도덕적 신뢰와 자격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듯 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것은 전북교육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며 "민주진보 진영 후보로서의 자격 역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과거 논문 표절 논란으로 교육부 장관 또는 후보자에서 물러난 사례들을 언급하며, "충분한 도덕적 검증 없이 이뤄진 결정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교수는 표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의혹을 한 치의 숨김없이 밝혀야 하며, 선택적 해명이나 사과를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축소하거나 시간을 끌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전북교육은 불완전한 사과 위에 다시 설 수 없다"며 "천 교수는 개인의 명예를 넘어 전북교육과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위해 후보 철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4년 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이번에도 논란을 안은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 책임은 민주진보 진영 후보로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고·칼럼 무단 인용 사실 깊이 사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언론사 기고·칼럼 표절 논란과 관련해 무단 인용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천 교수는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러 언론에서 제기해 온 언론사 기고와 칼럼의 무단 인용에 대해 마음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표절 논란이 2024년 처음 제기된 이후 인터넷 요청에 응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과와 반성을 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사과가 전달되면서 인물이 생겼고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40여 년 동안 수백 편의 기고문을 썼으며, 돌아보면 상당수 칼럼에서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인용한 글의 원저자와 통례형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전북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향후 조치와 관련해 "지금까지 써온 기고문을 전수 확인한 뒤 삭제하거나 수정하겠다"며 "이번 일을 뼈에 새기는 심정으로 반성과 성찰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학자로서, 교육감 후보자로서 저의 도덕과 양심에 남은 이 상처를 평생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며 "언제나 겸손하고 투명한 교육자가 되도록 더 성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내 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공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증 기준은 모르지만, 모든 판단은 도민들이 해 주실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후보 등록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임실 Wee센터 지원학생 대상 '추수상담주간' 운영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효선)은 2025년 위(Wee)센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위기 예방을 위해 내달 6일까지 추수상담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추수상담이란 상담 종결 후에 일상 생활에서 내담자의 경험 행동 변화, 강화·보완, 상담자 역량 점검을 돕는

후속 과정이다.

이번 추수상담 대상은 2025년 위(Wee)센터 지원 학생과 학부모다.

주요 내용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추수상담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마음꾸러미 전달 △위기 스크리닝 등으로 구성됐다. /임실=진홍영기자